

“무안 지역 어르신들 열정 담아 ‘행복 빵’ 구워요”

무안읍, ‘행복을 굽는 어르신 베이킹 스쿨’ 운영 초당대 교수·학생 재능기부·제과제빵 기술 전수

지역 대학의 재능기부와 어르신들의 열정을 담아 구워낸 빵으로 행복을 만들 어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명호·박남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을 굽는 어르신 베이킹스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취미활동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초

당대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베이킹스쿨에 참여한 10명의 어르신 들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제과제빵 활동을 체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직접 만든 빵과 쿠키를 함께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초당대 학생들은 전문적인 제과 제빵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 에게 친절하게 교육을 진행하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내 지역사회에 훈 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남철 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빵을 만들며 활력을 얻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명호 무안읍장은 “초당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의 따뜻한 재능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을 굽는 어르신 베이킹 스쿨’을 운영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아이디어에서 실행까지”...광양, 정책디자인단 가동

프로토타이핑 방식 구체화 6월 팀별 연구 결과 등 발표

광양시는 최근 라희호텔에서 ‘2026년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열고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연구모임으로, 직원 50명이 실·국별 10팀을 꾸려 복지, 경제, 일자리, 관광, 문화,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정책디자인단이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소규모 실험)’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실행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토타이핑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규모로 적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양시는 최근 라희호텔에서 ‘2026년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광양시 정책환경과 지역 분석, 프로토타이핑 사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책디자인단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프로토타이핑, 선진지 견학,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코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6월에는 정책오디션을 열어 팀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발굴된 우수 시책은 2027년 신규 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팀에는 포상금과 인사 가점 등 인

센티브를 부여해 정책개발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책기획 역량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경쟁력이다”며 “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동신대 응급구조학과 김영완씨, 육군참모총장 표창 우수학생 선정...“생명지키는 응급구조사 되도록 노력”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응급구조학과 3학년 김영완씨(23·사진)가 응급구조 분야 우수 학생으로 선정돼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완씨는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높은 학업 성취도, 뛰어난 실습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응급구조 분야 전문성과 국가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높은 현장 대응능력, 책임감, 봉사 정신을 두루 갖춘 학과를 대표하는 우수 인재로 추천받았다.
김씨는 “군 응급구조 장교를 목표로 학교생활과 실습에 매진해 왔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뜻깊은 상을 받게돼 감사한 마음과 함



께, 앞으로도 깊은 책임감과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동신대 응급구조학과장은 “실무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김영완 학생이 학교와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 대표되는 우수 인재로 추천받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 농촌 왕진버스 의료 사각지대 없앤다 맞춤형 종합 진료 실시로 900여 명 농업인 건강 증진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나주에서 첫선을 보였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올해 첫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남평초등학교에 차려진 농촌 왕진버스 현장에서 의료 상담을 비롯한 건강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운행의 시작을 알린 곳은 남평읍이다. 지난 15일 남평초등학교 남평관에 임시 진료소가 꾸려졌으며, 남평읍과 다도면 일대 농업인 약 300명이 이곳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장 진료에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소속 의료진이 투입됐다.
이들은 혈압과 혈당 등 기초 체력 측정부터 개인별 건강 상담과 맞춤형 일반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농사일로 지친 몸의 회복을 돕는 영양 수액 처방과 한방 파스 지급 등 농촌 맞춤형 처치가 이어져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단순 진료 외에 일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시가 관리를 위한

정밀 검안과 맞춤형 돋보기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복지 서비스가 병행됐다.
나주시는 이번 남평 지역 운영을 기점으로 의료 복지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마한농협, 9월에는 다시 문평농협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순회 진료를 통해 지역 농업인 900여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태진 나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직접적 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라며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향후 관련 지원책을 더욱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신영식 기자 cut@gjdream.com

고흥,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실행력 강화

조স্য료 경영체 대상 교육

고흥군은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최근 유자골한우프라자에서 조স্য료 경영체 대상 조স্য료 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중동 지역 긴장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사료비 부담 증가 상황에서 국산 조স্য료 생산을 확대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사료 지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6년 사업 지침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방향, 사일리지 지원체계, 사업 신청·선정·정산 절차,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군은 단순한 지침 전달에서 벗어나 농가별 경영 여건에 맞는 사업 참여 방법과 조স্য료 생산·수확·사일리지 제조 과정별 유의사항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조স্য료 재배·생산 확대, 사일리지 제조·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 행적을 통해 안정적인 조স্য료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고흥군은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최근 유자골한우프라자에서 조স্য료 경영체 대상 조স্য료 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교수에게 수여하는 ‘부세’ 신제품 개발 성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수온 버티는 ‘부세’...전남해수원, 연구 최우수 30대 이상 생존 전라품종 제시...현장 적용·소득 효과 인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교수에게 수여하는 ‘부세’ 신제품 개발 성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후변화로 수온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한 ‘2025년 연구·기술보급 사업 최종평가 보고회’에서 ‘부세 신제품 양성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여름철 해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양식 어종의 폐사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대체 품종 확보가 수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세는 30도 이상의 수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어종으로, 고수온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양식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주요 양식 어종 대비 환경 적응력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부세는 kg당 1만5000~1만7000원 수준의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 확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양식업 구조 다변화와 수의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수온 대응 대체 어종으로서 부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성과를 함께 인정받았다. 시범 양식과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점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인사

광주·전남경찰청 ◇경무관 전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용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중